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코로나19 우한 교민 포용에 감동”

아산·진천·이천주민 여수관광 50% 할인합니다

감사 마음 전하고자 뜻 모아
3개 지자체에 협조공문 발송

“아산, 진천, 이천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에 오시면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18일 여수관광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아산·진천·이천에 사는 주민이 여수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50%할인한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지난 17일 “지역이거주의를 뛰어 넘어 헌신과 따뜻한 동포애를 실현해준 아산, 진천, 이천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회원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할인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3개 지자체에 발송했다.
협조 공문에는 아산·진천·이천 주민들이 여수를 찾을 경우 미남크루즈 등 소속 회사들의 시설

이용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간은 상반기로 정했으나 코로나19의 종료 시점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산과 진천에서 격리돼 있었던 우한 교민 700명이 격리기간을 마치고 15~16일 양일에 걸쳐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12일 3차 귀국한 우한 교민 146명은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생활을 하고 있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지난 2013년 설립됐으

며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기구다. 호텔과 다수의 관광시설이 협의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기 여수관광발전협의회장은 “아산·진천·이천 주민들이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이 여수를 방문하면 그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양면사무소 신청사 개소

42억 투입 지상 3층 2동 규모



여수시 화양면은 17일 면사무소 신청사(사진) 개소식을 했다.
신청사는 42억원을 투입해 기존 면사무소 자리에 연면적 1623㎡, 지상 3층 2동 규모로 건립됐다.
본동 1층은 면사무소·복지상담실·문서고, 2층은 농어업인상담실·대회의실·다목적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실·소회의실로 사용된다. 별동 1층은 면사무소 창고, 2층은 화양면 예비군중대본부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 6월 착공해 지난달 말 완공, 지난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북 어선 선원 등 13명 구조 여수해경, 선장 2명에 표창장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북편 어선에서 선원 등 13명을 구조한 308다성호 선장 김성국(52) 씨와 명성호 선장 조전호(52) 씨 등 2명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선장 등은 지난달 7일 새벽 0시50분께 제주도 서귀포 북서쪽 39km 해상에서 항해 중 뒤집힌 목포선적 A호 선원 13명을 구조했다.
조난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구조요청을 했고, 여수 선적 308다성호와 명성호는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서도 인명 구조에 나섰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 어선이 발 빠른 움직임으로 구조작업을 벌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해경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화양~고흥 적금 해상교량 28일 개통 명품 해양관광시대 열린다

여수 둔병도와 남도를 잇는 둔병대교.

다음달 야간 경관조명사업 완료 브릿지 시티투어 등 볼거리 풍성

‘여수 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접근로가 개통된다. 다도해의 풍경과 바다·어촌의 생생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여수 화양면과 고흥 적금면을 잇는 해상교량 4곳이 오는 28일 개통된다. 총 연장 17km로 여수시 4개 섬(조발도·남도·둔병도·적금도)을 해상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해상다리는 4개로 적금대교, 남도대교, 둔병대교, 팔영대교 등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개통에 앞서 여수 관광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19일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설 명절 임시 개통 기간 3만40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365개 보석같은 섬을 보유한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눈에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4개 섬 지역에 ‘가고 싶은 섬’ 남도 및 남도항 개발사업, ‘둔병항 어촌뉴딜300 사업’,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 ‘교량 야간경관조명 사업’, ‘브릿지 시티투어’ 등 어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교량 야간 경관조명사업이 완공되는 3월에는 낭만의 아이콘 여수 밤바다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계 용역비가 반영된 화태~백야 구간 해상교량이 개통되면 여수시 돌산과 화양, 고흥 영남을 잇는 11개 다리(일레븐 브릿지)가 모두 완성된다. 보석같은 섬과 아름다운 해상교량이 어우러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빈틈없는 사전 점검을 통해 여수와 고흥을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명품 해양관광도로 건설과 여수~고흥 브릿지 시티투어 등 핵심 관광상품을 개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악성 민원 품작마”... 읍·면·동에 비상벨 설치

여수시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민원부서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 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27개 읍·면·동에 설치하기로 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원실 비상벨은 지난해 9월 우선적으로 분청 3개소에 설치해 경찰서와 합

동 대응훈련을 마쳤고, 올해는 민원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전체 2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상벨은 폭행·폭언 등 특이민원 상황 발생때 즉시 경찰이 현장 출동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경찰서와 연계된 양방향 시스템이다.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을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위협 상황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중심 시대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